



국제갤러리 3관 에이스트릭트 개인전 'a'strict' 설치 전경

‘Wave’는 도심 한복판에서 실제로 파도가 치는 것 같은 시원한 장면을 연출해 해외에서도 화제가 됐다. 디스트릭트는 여세를 몰아 상업적 프로젝트와 별도로 자유롭게 미디어 아트 창작 활동을 펼치는 에이스트릭트를 결성했다.

인원을 고정하지 않고 약 70명의 디스트릭트 소속 크리에이터부터 과거 회사를 거쳐 간 크리에이터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이자 브랜드다.

이번 작품은 8명이 참여해 약 4개월간 작업했다. 물의 물성을 반영하는 수차례 실험을 거쳐 컴퓨터 그래픽으로 파도치는 장면을 구현했고, 바닷소리를 녹음해 현실감을 더했다. 파도치는 장면은 약 3분 분량 영상이 반복되는데, 같은 파도 모양을 찾아내기 어렵다.

디스트릭트는 그동안 물이 가진 다양한 속성과 풍부한 음향성을 재료로 하는 작업을 많이 했다. ‘Wave’에 이어 ‘Starry Beach’도 코로나19 사태로 답답한 도시인들의 가슴을 뚫어줄 만하다. 열린 공간인 거리 전광판과 달리 어두운 실내에서 마주하는 파도는 더 색다른 몰입감을 느끼게 한다.

전시일정(장소) 9월 27일까지(국제갤러리 3관(K3))
관람료 무료
☎ 02-3210-9872

갤러리 안으로 파도가 들이쳤다. 하얀 벽에 작품이 걸렸던 화이트큐브가 얹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블랙박스가 됐고, 바닥과 벽면에 설새 없이 파도가 밀려오고 부서진다.

킴킴한 밤바다에서 오로지 푸른 파도만 빛나는 초현실적인 풍경이 압도적이다. 6m 높이의 정면 벽을 타고 파도가 치는 모습은 공중에서 해변을 내려다보는 듯하고, 바닥의 파도는 발을 적실 듯이 실감난다. 벽은 거울로 둘러싸여 마치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듯한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광장의 대형 LED 스크린에서 요동치던 파도 영상 ‘Wave’를 제작한 디자인업체 디스트릭트(d'strict)가 미디어 아티스트 유닛 ‘에이스트릭트’(a'strict)를 만들어 선보이는 대형 멀티미디어 설치작업 ‘Starry Beach’다.

벽돌보다 더 벽돌 같은 그림

캔버스에 벽돌이 뺄곡하게 쌓였다. 실제 모래를 발라 그린 벽돌 회화다. 반짝이는 모래 입자와 입체감이 살아있는 세밀한 재현으로 눈앞의 벽돌이 손에 잡힐 듯하다. 그림인 줄 알면서도 만져서 확인해보고픈 충동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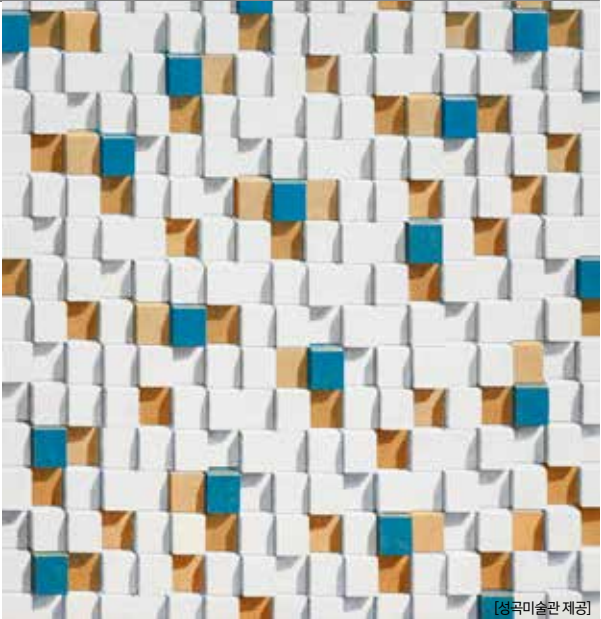
‘벽돌 작가’ 김강용(70)의 대규모 회고전이다. ‘김강용: 극사실적 벽돌’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작가가 1970년대 청년 시절부터 최근까지 작업한 주요 작품 160여점을 선보인다.

홍익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작가는 1970년대부터 모래를 회화 재료로 도입해 극사실적 기법으로 벽돌을 그려왔다. 1976년 첫 모래 작업을 선보인 그는 1990년대까지 흙과 모래로 새로운 실험을 계속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모래 벽돌의 재현을 넘어 다양한 조형적 변화를 모색했다.

2000년대 이후 작품에서 벽돌은 모사 대상이 아니라 화면의 구성요소가 된다. 진짜 벽돌을 보는 듯한 리얼리티는 여전하지만, 벽돌 이미지는 어느 순간 화면에서 추상적 존재로 탈바꿈한다.

김강용은 “점, 선, 면으로 이뤄진 조형미를 화두로 삼는 지금은 가장 근원적인 요소인 모래알을 하나의 점이라는 의미로 쓴다”며 “여기에 작가의 행위로 선을 가미하면, 화면의 나머지는 면이 된다”고 말했다.

작가의 작업은 모래 채집부터 시작된다. 강변 모래부터 동해안, 서해안 등 전국 각지 모래가 모두 빛과 굵기, 질감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천연석과 대리석을 갈아 만든 색감이 있는 규사, 공업용 규사도 사용해 더 다채롭게 화면을 구성한다.



김강용 '현실+상 1811-1666', 2018. Mixed media, 200x200cm

전시일정(장소) 9월 20일까지(성곡미술관)
관람료 일반 1만원, 청소년 8천원, 어린이 6천원
☎ 02-737-7650



디오라마비방씨어터 송주호, ‘연조이! 토탈 인터미션’, 2020, 시노그래피 및 퍼포먼스

전시일정(장소) 11월 15일까지(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관람료 무료
☎ 02-2124-8800

퍼포먼스를 전시하다

퍼포먼스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행위로 구성되는 실험적인 예술이다. 회화나 조각처럼 고정된 형태의 창작물과 달리 퍼포먼스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완성되는 동시에 사라진다. 이러한 특성은 퍼포먼스를 특별하게 만들지만, 한계로도 작용한다.

서울시립미술관 ‘하나의 사건’전은 퍼포먼스를 전면에 내세워 다각도로 살펴본다. 퍼포먼스를 접목한 설치, 조각, 회화, 영상 작품 등을 전시하고, 라이브 퍼포먼스를 전시 기간 100여 차례 진행한다.

전시는 낯설고 어려운 예술로 느껴지던 퍼포먼스에 한발 가까이 다가서게 한다. 조연이 아닌 주연이 된 퍼포먼스를 통해 그 가능성과 확장성도 확인할 수 있다.

강세운, 김정현, 김해주, 서현석 등 4명의 기획자가 작가 18명의 작품을 통해 네 가지 주제로 시각예술 안에서 퍼포먼스를 조명한다.

첫 주제 ‘부재의 현장성’은 퍼포먼스의 기록에 대해 들여다본다. 퍼포먼스의 휘발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기록은 복제물로 여겨지기도 한다. 퍼포먼스를 위한 지시문도 마찬가지다. 전시는 라이브 퍼포먼스만이 전부가 아님을 제안한다.

두 번째 주제 ‘마지막 공룡’은 전시라는 형식 속에서 드러나는 현장성의

한계와 마지막까지 남는 퍼포먼스 요소를 탐구한다.

세 번째 주제 ‘무빙 / 이미지’는 전시 시작부터 끝까지 나타나는 전시장 내부 변화를 하나의 퍼포먼스로 가정한다. 회화, 조각, 설치, 영상 등 다양한 장르와 퍼포먼스를 연결해 바라보는 시도다.

네 번째 주제 ‘이탈’은 가상현실(VR)을 통해 관객이 직접 퍼포먼스를 체험하도록 한다.



꿈속으로 떠나는 기묘한 여행... 영화 '후쿠오카'

과거의 강렬했던 기억은 머릿속 한 곳에 계속 남아있다가 꿈을 통해 불쑥불쑥 찾아오기도 한다. 장률 감독의 '후쿠오카'는 마치 꿈으로 찾아온 기억을 되짚는, 판타지와도 같은 영화다. 영화 '후쿠오카' 안에서는 꿈과 현실, 내가 재구성한 기억과 실제 일어났던 일, 나와 타인, 한국과 일본 그 모든 상반된 지점에 있는 것들의 경계가 뒤흔들린다.

대학가에서 헌책방을 운영하는 제문(윤제문 분)은 교복을 입은(그러나 스물 한살이라고 주장하는) 단골 소담(박소담)의 제안으로 불쑥 일본 후쿠오카로 여행을 떠난다. 두 사람은 후쿠오카에 도착해 제문의 대학 선배 해효(권해효)가 운영하는 작은 술집을 찾는다. 해효와 제문은 28년 전 대학 동아리 후배 순이를 동시에 사랑한 악연으로 얽혀있고 이 첫사랑의 추억에 갇혀 사는 두 남자는 만나자마자 으르렁댄다. 이 두 사람과 4차원의 소담이 3일 동안 후쿠오카를 여행하면서 기묘한 일들이 벌어진다.

세 사람의 후쿠오카 여행은 마치 꿈속 같다. 이들이 겪는 일들엔 일관성이나 개연성이 없다. 소담이 제문에게 맥락 없이 후쿠오카 여행을 제안하고, 두 사람은 바로 다음 장면에서 후쿠오카에 도착해 있다.

그뿐이 아니다. 소담은 일본어를 전혀 못 하지만 일본어를 알아듣고 그와 대화를 하는 일본인도 소담의 말을 통역 없이 이해한다. 일본인뿐만 아니라 우연히 만난 중국인도 마찬가지다. 10년 동안 말을 않던 해효 술집의 단골이 갑자기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도, 이 모든 것에는 납득할만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

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꿈속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이다. 영화 안에서는 꿈과 현실의 경계뿐 아니라 등장인물 간의 경계도 허물어진다. 가끔 알아들을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소담은 순이 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해효와 제문이 함께 있는 모습이 무대 같으며 자신이 순이 역할을 맡기도 할 때는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두 사람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한 여성의 모습이 된다. 한국과 일본의 경계가 무너지는 결말 부분에서는 “둘이 똑같다”라는 소담의 말처럼 해효와 제문의 경계도 함께 사라진다. 두 남자의 정신을 아직도 지배하는 순이는 누구인가. 그는 윤동주 시인의 시 '사랑의 전당', '소년', '눈오는 지도' 등에 등장하는, 그 순이다.

장률 감독은 경계인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 윤동주 시인을 데려온다. 이는 전작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2018)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중국 북간도에서 태어나 서울과 평양에서 학교에 다니고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한 윤동주 시인은 한·중·일의 경계를 모두 아우르기 때문이다. 전작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경계인으로 산장 감독의 시선이 역시 담겼다.

감독 장률
출연 권해효, 윤제문, 박소담
등급 15세 관람가
개봉 8월 27일

테넷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개봉하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이자 국내에도 수많은 팬을 확보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이다.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미래의 공격에 맞서 현재 진행 중인 과거를 바꿔야 한다. 이 작전의 주도자인 주인공은 시간의 흐름을 뒤집는 인버전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오가며 세상을 파괴하려는 사토르를 막아야 한다. 주인공은 인버전에 대한 정보를 가진 닐과 미술품 감정사이면서 사토르에 대한 복수심이 가득한 닐의 아내 컷과 협력해 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나선다.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출연 존 데이비드 워싱턴, 로버트 패틴슨
등급 12세 관람가
개봉 8월 26일



사랑이 눈들 때

알렉 볼드윈, 데미 무어가 만나 완성해낸 중년의 로맨스다. 사고로 아내와 시력을 잃은 베스트셀러 작가 빌은 그 이후 집필을 중단한다. 사고 이후 까칠해진 그에게 범죄에 연루돼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수잔이 봉사자로 배정된다. 펜트하우스, 다이아몬드 반지, 상류층 파티 등 상위 1%의 화려한 삶을 살아온 수잔은 고집 센 그에게 지지 않고 당차게 맞선다. 운명적인 사랑을 그려낸 두 배우는 영화 '주어러'(1996) 이후 24년 만에 연기 호흡을 맞췄다.

감독 마이클 메일러
출연 알렉 볼드윈, 데미 무어
등급 12세 관람가
개봉 8월 26일



오! 문희

배우 나문희가 연기 인생 59년 만에 처음으로 액션 연기에 도전했다. 충남 금산의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손녀 뺑소니 교통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인 할머니 오문희가 아들 두원과 함께 뺑소니범을 잡기 위해 벌이는 수사극이다. 손녀는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있고 할머니 오문희는 기억이 감뻑감뻑하는 와중, 예기치 못한 순간 결정적인 단서를 기억해낸다. 액션 연기를 소화하기 위해 나문희는 트랙터 운전까지 배웠다고 한다.

감독 정세교
출연 나문희, 이희준
등급 12세 관람가
개봉 9월 2일

기기괴괴 성형수

오성대 작가의 동명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해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다. 젊은 여성들이 큰 관심을 갖는 성형을 주제로 완성해낸 공포극이다. 바르면 완벽한 미인이 되는 위험한 기적의 물 성형수를 알게 된 주인공 예지가 미인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담았다. 올해 애니메이션계의 칸 영화제로 불리는 제44회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장편 경쟁 부문에 초청됐으며, 국내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대만 등 해외 개봉을 확정했다.

감독 조경훈
출연 문남숙, 장민혁, 조현정
등급 15세 관람가
개봉 9월 2일



테일러 스위프트

[EPA=연합뉴스]



레이디 가가

[AP=연합뉴스]

테일러 스위프트, 자가격리 중 만든 정규 8집 팬들에 '깜짝 선물'

그래미의 사랑을 듬뿍 받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깜짝 신보를 발매했다. 올해 예정된 투어를 모두 취소해야 했던 스위프트가 자가격리 속에서 작업한 8번째 정규 앨범 '포크로어'(Folklore)다. 그는 앨범 공개를 불과 16시간 남짓 앞두고 SNS를 통해 기습적으로 발매 소식을 알려 팬들을 들뜨게 했다. 보통 앨범을 알리기 위해 선보이는 선공개 싱글 없이 이례적으로 16곡을 한꺼번에 공개한 것도 눈길을 끈다.

스위프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가 이번 여름에 계획했던 대부분의 일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지만, 계획하지 않은 무언가가 일어나게 됐다”며 “제 모든 기분, 꿈, 두려움, 그리고 사색을 쏟아부은 노래들”이라고 새 앨범을 소개했다. 타이틀곡 '카디건'(cardigan)을 비롯한 전곡에 사색적인 포크 색채가 짙게 깔렸다. 미국의 인디 록 밴드 '더 내셔널'의 아론 데스너가 16곡 중 11곡을 함께 작업했다.

이 앨범은 발매 첫 주 84만6천 장 상당의 총 판매고를 올려 메인 앨범 차트인 최신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 올해 들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다. 이후에도 3주 연속 이 차트 정상을 지키는 중이다. 메타크리틱에서 88점을 받는 등 평단에서도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스위프트가 당시로는 최연소인 22세에 그래미 '올해의 앨범상'을 받은 만큼, 이번 앨범으로 그가 다시 한번 그래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호화 피쳐링진 거느리고 돌아온 레이디 가가의 '크로마티카'

레이디 가가 정규 6집 '크로마티카'(Chromatica)가 코로나19 여파로 한 차례 연기된 끝에 발매됐다. 가가의 4년 만의 신보인 이 앨범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초호화 피쳐링진이다. 국내 걸그룹인 블랙핑크부터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 엘튼 존 등이 가가와 협업했다.



존 레전드

[AP=연합뉴스]

블랙핑크가 참여한 '사워 캔디'(Sour Candy)는 미국에서 발표되는 팝으로는 이례적으로 가사에 한국어도 포함됐다. 이 곡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33위에 오르면서 블랙핑크는 국내 걸 그룹 사상 이 차트에서 최고 기록을 세웠다. 영국 오픈셜 싱글 차트에서는 20위를 차지해 역시 같은 기록을 썼다.

그란데와 함께한 '레인 온 미'(Rain On Me)는 '핫 100' 정상에 올랐다. 이 곡은 최정상급 팝스타 두 명이 만났다는 점에서 발매 전부터 화제가 됐다. 발매 두 달이 지나서까지 이 차트 상위권에서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있다.

평단에서도 좋은 평가를 했다. 메타크리틱에서는 79점을 기록했으며 빌보드, 버라이어티, 롤링스톤, 엔터테인먼트 위클리 등이 선정한 2020년 최고의 앨범 목록에 포함됐다. 윌뮤직은 “크로마티카는 레이디 가가의 가장 일관되고 만족스러운 앨범 중 하나가 됐다”고 평하기도 했다.

불안한 시대에 사랑을 전하는 존 레전드

그래미상을 11회 받고 에미상, 오스카상, 토니상 트로피까지 모두 쥐며 흑인 가수 최초로 'EGOT'(각 상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를 달성한 '전설'. 미국 R&B(리듬 앤드 블루스) 가수 존 레전드가 '더 큰 사랑'을 품은 앨범을 내놨다. 4년 만의 정규앨범인 6집 '비거 러브'(Bigger Love) 얘기다.

선공개한 동명 수록곡과 '컨버세이션스 인 더 다크'(Conversations in the Dark), '액션스'(Actions)를 비롯해 총 열여섯 곡이 실렸다. 16 트랙에는 사랑과 회복, 향수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레전드는 앨범 발매 당시 “부디 많은 이들이 내 음악을 통해 우리가 사는 지

금 이 순간 아름다운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타이틀곡 '유 무브, 아이 무브'(U Move, I Move)를 가장 아끼는 곡으로 꼽은 그는, 연인이 대화하는 분위기를 내기 위해 솔로곡이었던 곡을 듀엣곡으로 다시 편곡했다. 여성 솔로 가수 즈네 아이코가 함께 불렀다. 이 외에도 찰리 푸스, 개리 클라크 주니어, 코피 등 다양한 아티스트가 앨범을 작업했다.

롤링스톤은 “이 앨범의 '자의식'이라는 주제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현재 환경에 잘 어울린다”고 평가하며 5점 만점에 3.5점을 부여했다. 레전드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온라인 콘서트 무대에 오르는 등 자선 활동도 하고 있다.

그러나 앨범 자체만을 놓고는 평단의 평가가 엇갈린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70점을 주며 “그는 쉽게 R&B를 한 번 더 할 수 있었지만, 대신 그는 자신을 시험했다. 비슷한 위치에 있는 예술가들에게서는 보기 힘든 것”이라고 썼다. 반면 가디언은 40점을 주고 “아이러니한 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 노래가 16트랙이나 있는 이 앨범이 너무 과하다는 것을 레전드 또한 알고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0 팝 상반기 결산 베스트 앨범 ②



세계 4대 뮤지컬 ‘캣츠’, 오리지널 내한공연

뮤지컬 걸작으로 손꼽히는 ‘캣츠’의 오리지널 내한공연이 9월 9일 서울 잠실 샤롯데씨어터에서 개막한다.

캣츠는 1981년 초연 이후 30개국, 300여개 도시에서 8천만명이 관람한 뮤지컬이다.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 ‘미스 사이공’과 함께 뮤지컬계의 ‘빅4’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영미 모더니즘의 대표주자인 TS 엘리엇의 시집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를 바탕으로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음악을 입혔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젤리클 고양이들의 축제를 그린 뮤지컬로, 신비로운 고양이로 분장한 배우들의 정교한 동작과 화려한 춤, ‘메모리’

로 대표되는 아름다운 노래로 주목받았다. 로렌스올리비에상, 토니상, 드라마테스크상, 그래미상 등 전 세계 유수의 상을 석권했다. 특히 음악, 조명, 무대, 안무가 어울려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하는 오프닝은 명장면으로 손꼽힌다.

국내에서는 1994년 오리지널 내한 공연 이후 2017년까지 누적 관객 200만명을 돌파했다. 고(故) 질리언 린 안무가와 함께 ‘캣츠’의 무대를 맡아온 협력 연출 크리스 카트라이트가 2017년 시즌에 이어 이번 내한 공연의 연출을 맡는다.

이번 오리지널 내한공연은 2017년 국내에서 호평받았던 새로워진 ‘캣츠’의 아시아 초연 프로덕션 그대로 찾아온다. 그리자벨라 역에는 ‘미스 사이공’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레 미제라블’ 등 주요 뮤지컬에서 주연을 도맡아온 조아나 암필이 연기한다. 럽텀 터거 역은 영국 웨스트엔드의 기대주 댄 파트리지, 올드 튜더려노미 역은 브래드 리들이 맡았다. 리들은 ‘오페라의 유령’에서 유령 역만 2천 700회 맡은 베테랑이다.

서울공연은 11월 8일까지며 이후에는 지역 투어가 예정돼 있다.



공연일정(장소) 9월 9일~11월 8일(샤롯데씨어터)
관람료 6만~16만원
☎ 02-580-1300

전쟁의 참상…연극 ‘그을린 사랑’

2020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연극 부문 대상 격인 백상연극상을 받은 신유청 연출의 ‘그을린 사랑’이 9월 23~27일 LG아트센터 무대에 오른다.

레바논 태생의 캐나다 작가 겸 연출가 와즈디 무아와드의 희곡 ‘화염’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2010년 드니 빌니브 감독이 만든 동명의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2012년 처음으로 김동현 연출가에 의해 명동예술극장에서 선보였다.

연극은 오랜 침묵 속에 자신을 가뒀던 어머니가 사망한 뒤로 그 유언에 따라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와 존재조차 몰랐던 형제를 찾아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전하는 쌍둥이 남매의 이야기다.

2016년 초연 당시 목격한 원작, 감각적인 연출, 세련된 미장센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배우 남명렬, 이주영, 이원석, 이진경, 하준호, 백석광 등이 출연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공연일정(장소) 9월 23일~27일(LG아트센터)
관람료 4만5천~6만5천원
☎ 02-2005-0114



‘전쟁과 평화’가 뮤지컬로…‘그레이트 코멧’ 초연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이 9월 15일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개막한다.

미국의 작곡가이자 극작가 데이브 말로이가 톨스토이의 소설 ‘전쟁과 평화’ 중 일부 내용을 기반으로 연출가 레이철 차브킨과 손잡고 만든 성 스루(Sung Through·대사 없이 노래로 이어지는) 뮤지컬이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을 배경으로, 방대한 인물이 등장하는 소설에 비해 뮤지컬은 주로 피에르, 나타샤, 아나톨의 삼각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불행한 결혼생활에 힘들어하면서도 나타샤를 연모하는 피에르 역은 홍광호와 케이윌이 맡는다. 전쟁에 나간 안드레이를 그리워하는 여인 나타샤 역은 정은지와 이혜나가 연기하며 바람둥이로 나타샤를 유혹하는 아나톨 역은 이충주·박강현·고은성이 맡는다. 안드레이와 그의 아버지 볼콘스키 역은 강정우가 맡아 1인 2역을 소화한다.

공연일정(장소) 9월 15일~11월 29일(유니버설아트센터)
관람료 6만~14만원
☎ 02-3485-8700



클라라 주미 강·손열음 4년 만에 듀오 콘서트

유럽과 한국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클래식계의 스타가 4년 만에 국내에서 듀오 콘서트를 진행한다.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과 피아니스트 손열음은 9월 2일 제주를 시작으로 10일 대구 공연까지 전국 투어를 펼친다.

주미 강과 손열음은 듀오로서 2012년 미국 카네기홀 무대에 섰다. 국내에서는 2013년에 이어 데카(DECCA) 레이블을 통해 듀오 앨범 발매를 기념한 2016년, 전국투어를 진행했다. 두 연주자가 호흡을 맞춘 건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 시절인 2004년부터다. 주미 강(04학번)과 손열음(02학번)은 선후배 사이다.

주미 강은 다섯 살에 함부르크 심포니와 협연 무대로 데뷔했고, 인디애나폴리스, 샌다이, 서울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그는 게르기예프, 테미르카노프 등 저명한 지휘자와 호흡을 맞추며 유럽과 아시아를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손열음은 2011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준우승했으며 로린 마젤, 네빌 마리너, 게르기예프 등 세계적인 거장들과도 호흡을 맞췄다. 지난해 성황리에 마친 BBC 프롬스 데뷔 무대를 비롯해

다양한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평창대관령음악제 예술감독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들은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매력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곡들로 프로그램을 직접 구성해 관객들을 만난다. 공연에서는 라벨의 '유작'이라는 부제로도 알려진 바이올린 소나타를 비롯해 프로코피예프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다섯 개의 멜로디, 슈트라우스 바이올린 소나타, 스트라빈스키 디베르티멘토를 연주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프로코피예프와 슈트라우스의 곡은 해외 공연에서 수차례 선보인 바 있다.

주미 강과 손열음은 제주(2일), 서울(4일), 수원(5일), 고양(6일), 구미(8일), 함안(9일), 대구(10일)에서 공연한다.

공연일정(장소) 9월 4일(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3만~10만원
☎ 02-580-1300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김선욱의 피아노 독주회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는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리사이틀이 9월 13일 오후 7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애초 3월 6일 예정된 공연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취소됐다가 다시 일정이 잡혔다.

김선욱은 공연에서 베토벤의 후기 피아노 소나타 30번, 31번, 32번을 휴식 시간 없이 잇달아 연주할 예정이다.

김선욱은 2006년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연소 및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 우승하며 명성을 얻었다. 이후 런던 심포니,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등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9월에는 정명훈이 지휘한 드레스덴 슈타츠크펠레와 협연한 실황 음반(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일정(장소) 9월 13일(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3만~10만원
☎ 02-580-1300



기타리스트 박규희 데뷔 10주년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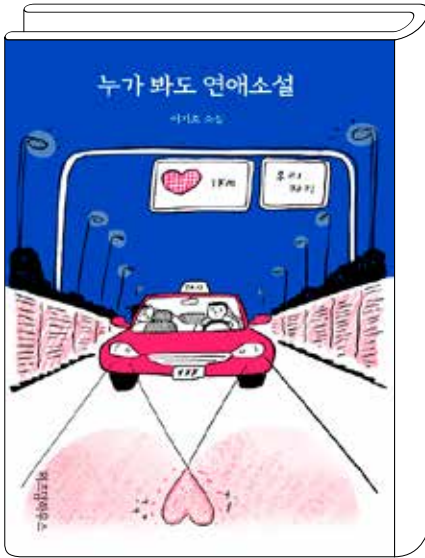
기타는 클래식 음악 악기로는 피아노나 바이올린처럼 대중적이진 않다. 그러나 클래식 기타도 다른 악기에 못지않은 묘한 매력이 있다. 베토벤은 '기타는 작은 오케스트라'라 했고, 쇼팽은 '기타의 아름다움은 어느 것에도 비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타리스트 박규희가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를 9월 2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연다.

박규희는 아홉번의 국제 콩쿠르 우승, 여덟 장의 앨범 발매를 통해 주목받은 클래식 기타리스트다. 특히 2008년 벨기에 프렐탕 국제 기타 콩쿠르에서 첫 여성 우승자이자 최초의 아시아인 우승자로서 이름을 알렸다. 2010년 데뷔 앨범 '쇼에노'와 2012년에 선보인 '소나타 누아르'는 일본 음악전문지 레코드예술의 '롱 베스트셀러 앨범'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콘서트에선 빌라로부스 '쇼로 1번', 알베니즈 '카탈루냐 기상곡', 비제 '카르멘 모음곡' 등을 연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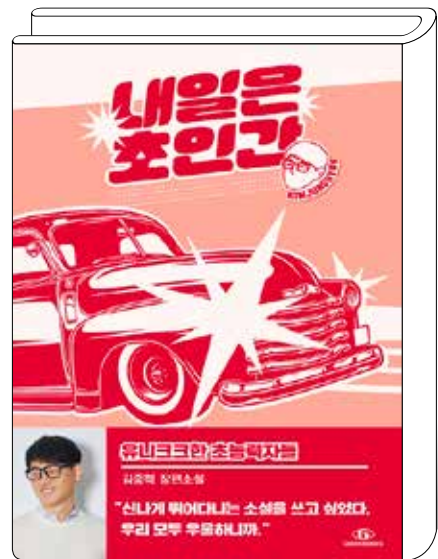
공연일정(장소) 9월 26일(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3만~10만원
☎ 070-7579-3660, 02-580-1300



이기호 지음/ 위즈덤하우스 펴냄/ 232쪽/ 1만3천800원

제목처럼 연애 소설이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로맨틱하거나 극적이거나 달콤하거나 가슴 아린 사랑 얘기는 아니다. 뭔가 모자란, 결핍의 인물들이 자신보다 더 모자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야기다.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매일 먹는 편의점 직원에게 직접 만든 김밥을 가져다주는 김밥집 청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대학 동기에게 큰마음 먹고 돼지갈비를 사주고는 혹시 지원금으로 결제가 안 될까 봐 노심초사하는 남자, 이혼하고 고향에 내려온 첫사랑을 도와주는 시골 농총각. 짧은 소설 30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고, 때로는 삶이 힘들고 초라하지만, 그래서 더 타인에게 사랑을 베푼다. “비루한 삶도 사랑할 자격이 있다”고 작가는 외치는 듯하다.

등단 20주년을 맞은 소설가 김중혁은 문단에서 고유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왔다.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기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유머와 감성을 버무린 독창적 소설 세계를 펼쳐 확고한 팬덤을 보유한 작가다. 3년 만에 나온 장편소설 '내일은 초인간' 역시 따뜻한 상상력으로 가득하다. 책은 2권으로 구성됐다. 1부의 소재목은 '유니크크한 초능력자들', 2부는 '극장 밖의 히치코크'다. 소설엔 초능력자들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들의 초능력은 유용하게 쓸 데는 별로 없다. 오히려 초능력이 이들에게 콤플렉스로 작용하는데 독자들 입장에서 그 점이 더 애뜻하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이들의 활약상을 마음 놓고 지켜보는 대신 오히려 다칠까 걱정해줘야 할 정도다. '루저'에 가까운 이들이 서로 힘을 합치며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에 공감하며 우리도 위로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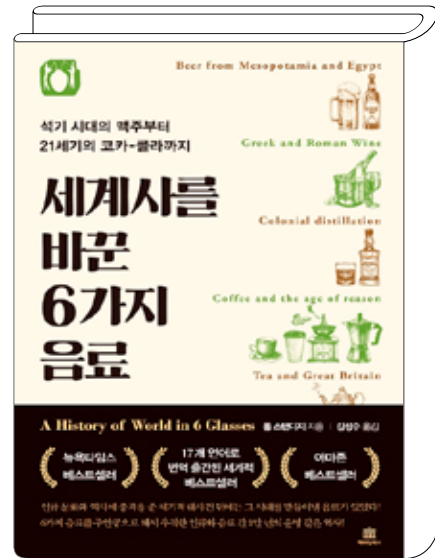


김중혁 지음/ 자이언트북스 펴냄/ 각 304쪽/ 각 1만4천원



스티븐 킹 지음/ 이은선 옮김/ 황금가지 펴냄/ 888쪽/ 2만4천원

'공포의 제왕'으로 불리는 스티븐 킹의 신작 소설. 이번엔 초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이용한 테러리즘 이야기다. 미니애폴리스에 사는 열두 살 소년 루크는 어느 날 밤 집에 침입한 괴한들에 의해 납치된다. 루크가 잡혀간 곳은 염력과 텔레파시를 가진 아이들을 잡아다 놓고 가혹한 훈련과 체벌로 능력을 극대화해 테러 활동에 활용하는 시설. 루크는 실험 부작용으로 한 입소자가 숨지는 사건을 목도하고는 죽음을 불사하고 탈출을 감행한다. 시설에 감춰진 거대한 비밀은 무엇일까. 극한의 공포에 맞선 루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킹 특유의 속도감 있는 전개와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가 독자를 사로잡는다. 판타지에 가까운 흥미 위주 설정이지만, 무거운 주제 의식도 놓지 않는다. 인간이 존엄성을 빼앗긴 환경에 처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진다.



음료는 역사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그 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집트 피라미드, 그리스 철학, 로마 제국, 미국 독립, 프랑스 대혁명, 영국 산업혁명, 아편전쟁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인류의 문화와 역사에 충격을 준 세계적 대사건 뒤에는 그 시대를 만들어낸 음료가 있었다. 영국의 언론인인 저자는 맥주, 와인, 증류주, 커피, 차, 콜라라는 음료 렌즈를 통해 석기시대부터 21세기까지 인류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이 서로 다른 문명의 복잡다기한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차례로 설명해준다. 다시 말해 인류와 음료 사이에 얹힌 1만년 역사 이야기다.

통스탠디지 지음/ 김정수 옮김/ 캐피탈북스 펴냄/ 324쪽/ 1만6천800원



재키 베넷 지음/ 김다는 옮김/ 쌤터 펴냄/ 352쪽/ 1만7천800원

르누아르와 세잔, 살바도르 달리, 프리다 칼로 등 위대한 화가들이 직접 가꾼 정원 이야기를 엮었다. 책에 등장하는 장소는 여전히 남아 있고 누구나 들러볼 수 있는 곳들이다. 시간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정원은 정물화의 소재와는 달리 매년 새로운 시선과 느낌으로 담아낼 수 있는 소재여서 많은 화가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모네는 지베르니의 정원에서 수백 점의 걸작을 그렸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고흐는 프로방스의 작은 정원에서 한 해 동안 150점이 넘는 작품을 완성했다. 1930년대 후반 멕시코시티에서 살았던 프리다 칼로에게 '푸른 집' 정원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정원과 화가의 관계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각 정원의 구조와 특징점은 물론 당시 미술 사조와 예술사적 흐름을 함께 설명한다.



유호중 지음/ 콘텐츠그룹 재주상회 펴냄/ 256쪽/ 1만5천원

사계절 내내 온화한 날씨를 즐길 수 있는 제주도는 푸른 바다가 지천에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카페가 많은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저자는 인기리에 자리를 잡고 있는 제주도 카페를 1편에서 선정한 데 이어 2편에서는 유니크한 매력을 자랑하는 79곳을 소개한다. 오직 제주도에서만 가능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 커피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집까지 다양한 카페가 한데 모였다.

호남 5대 명산 '장흥 천관산' 명승 된다

글 임동근 기자



[정홍균 제공]

예부터 호남 5대 명산 중 하나로 여겨져 온 장흥 천관산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8월 전남 장흥군에 있는 천관산을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

장흥 관산읍과 대덕읍 사이에 위치한 천관산은 예로부터 뛰어난 경관을 즐기 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았던 경승지다. 구룡봉, 구정봉 등은 돌탑을 쌓은 듯 솟 은 기암괴석이 독특한 경관을 선사하고, 능선의 역사 군락지와 조화를 이루며 절경을 이룬다. 또 연대봉, 환희대 등 봉우리와 능선에서는 다도해 경관이 펼쳐

지고, 맑은 날에는 제주도까지 조망할 수 있다.

천관산은 장흥 일대의 중심 산으로서 조선 초기까지 봉수대를 설치하거나, 국 가의 치제(致祭, 임금이 죽은 신하를 위해 지내던 제사)를 위한 장소로 활용돼 왔다.

문화재청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연려실기술’, ‘동문선’에 천관산에 관한 기록 이 상당수 전해지며, 인근에 천관사, 탑산사 등 사찰과 방촌마을 고택 등 문화관 광자원이 다수 분포해 역사·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조선왕실 대표 유물 100건을 온라인으로 만나다



[국립고궁박물관 제공]



[국립고궁박물관 제공]

공신 ‘오자치 초상’(보물 제1190호), 1920년 황실 화가 김은호가 그린 궁중 벽화 ‘창덕궁 대조전 백학도’(국 가등록문화재 제243호) 등이 공개된다.

온라인 투표로 선정된 유물은 순종이 고종을 태황제(太皇帝)로 올리면서 만든 ‘고종 가상존호(加上尊號) 옥보’와 ‘이하응 인장’, 순조의 생모인 수빈 박씨의 사당 일대를 그린 ‘경우궁도(景祐宮圖)’, 여러 마리 기러 기를 그린 ‘군안도(群雁圖)’ 병풍, 왕과 왕세자의 관복 문양 제작에 사용한 ‘용 흥배 목판본과 지본(紙本)’ 등이다. 공개 소장품은 고해상도의 다양한 사진들과 설명 자료 등과 함께 박물관 누리집(<https://www.gogung.go.kr/highlights.do>)에서 볼 수 있다.

해발 1천458m 평창 발왕산 정상에 스카이워크 개장

글 이해용 기자



[평창군 제공]

강원 평창군 해발 1천458m 발왕산 정상에 스카이워크가 8월 19일 개장했다. 용평리조트는 이날 최문순 강원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왕산 氣 스카이워크’ 개장식을 개최했다. 발왕산 스카이워크는 국내 스카이워크 중 가장 높은 곳 에 조성된 것이다.

신달순 대표 이사는 “장애인, 고령자 등 많은 관광 약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 문에 산 정상까지 올라가지 못했다”며 “발왕산 氣 스카이워크 개장은 모든 사람에 게 균등한 관광 기회를 제공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에 ‘내포보부상촌’ 문 열어…보부상 문화 전승·체험

글 양영석 기자

보부상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내포보부상촌’이 지난 7월 24일 충남 예산에서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덕산면 온천광장 주변 6만3천696㎡에 들어선 보부 상촌은 보부상을 주제로 한 유통문화 전시 박물관, 장터·난장, 체험공방, 놀이터 등으로 조성됐다.

박물관에는 보부상 관련 문화재와 물품들이 전시돼 있고, 보부상 문화 체험존 과 4차원(4D) 영상관이 마련됐다. 옛 모습을 재현한 장터에는 보부상들이 유통

했던 물품을 판매하는 상점과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주막이 자리 잡았다. 난장은 보부상놀이 공연과 축제, 전통혼례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보부상들이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조직한 상업 단체인 상 무사가 있는데, 예산·덕산에서 활동한 예덕 상무사는 지금까지 전통 명맥을 이 어오고 있다”며 “내포보부상촌이 우리 전통유산을 보존하고 후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산군 제공]



[예산군 제공]